

2015년도 국외연수 보고서

- ◆ 기 간 : 2015. 7. 14 ~ 7. 19 (5박 6일)
- ◆ 연수단 : 의원 2명
- ◆ 연수국 : 중국 (용정, 장춘)



서대문구의회

□ 목 차 □

I . 연수개요.....	1
II . 연수일정.....	2
III. 연수국 소개	
1. 방 문 국 : 중국	3
IV. 주요방문지 소개	
1. 백 두 산	4
1. 용 정	5-7
1. 훈 춘	7-8
1. 장 춘	8-9
V . 연수후기	9-10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 한 민족의 신화가 살아 숨 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항일 독립운동과 무쟁투쟁의 근거지인 용정지역과 북한 접경지역인 두만강 주변 도시에 대한 역사 도시탐방을 통해 민족의식 및 통일 안보의식을 고취
- ▷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문을 넓혀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활용

2. 기간 및 방문국

- ▷ 연수기간 : 2015. 7. 14(화) ~ 7. 19(일) 【5박 6일】
- ▷ 연수국가 : 중 국

3. 주요 방문도시(지역) 및 시설

- ▷ 백두산 : 서파, 남파, 북파등정
- ▷ 용 정 : 용정시청, 용정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대성중학교, 일송정 등)
- ▷ 장 춘 : 장춘시청, 북한 국경도시(도문시, 두만강 강변공원 등)

4. 연수단 구성【총 2명 - 의원 2명】

연 번	소 속(직위)	성 명	연 번	소 속(직위)	성 명
1	재정위(위원)	김 순 길	2	재정위(위원)	서 호 성

II. 연수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여 행 일 정
제1일 7/14 (화)	인 천 장 춘 장 백	OZ303	09:50 10:55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발 장춘 도착 장백시로 이동
제2일 7/15 (수)	백두산	전용버스 트레킹	오전 오후	백두산 남파 등정 (암록강대협곡, 탄화목 유적, 36호 경계비) 백두산 서파 등정 (금강대협곡, 5호경계비, 고산화원)
제3일 7/16 (목)	백두산 용 정	전용버스 트레킹	오전	백두산 북파 등정(장백폭포, 소천지) 용정시청 방문 용정 역사탐방 (시인 윤동주 생가 및 시비, 대성중학교, 해란강, 일송정)
제4일 7/17 (금)	훈 춘 도 문 연 길	전용버스	오전 오후	훈춘이동 및 훈춘 역사탐방 (안중근의사 유적지방문) 도문(두만강), 남양시 방문 (조중국경지대, 두만강 강변공원) 연길이동
제5일 7/18 (토)	장 춘	전용버스	전일	장춘이동 장춘시청 방문 장춘 역사탐방(위화궁 관람 및 장춘시 역사시설시찰)
제6일 7/19 (일)	장 춘 인 천	OZ304	15:00	인천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소개

1. 연수국 : 중국



- 수 도 : 베이징(北京)
- 면 적 : 9,596,961km² 세계4위
- 종족구성 : 한족 (92%)
55개 소수민족
- 언 어 : 한어, 조선어, 티벳어
- 인 구 : 약 1,343,239,923명
- 시 차 : 한국보다 1시간 늦다
- 통 화 : 위엔 (1위엔=185원)

중국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로, 국토는 남북 5,500km, 동서로 우수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 고원까지 5,200km에 달한다.

행정구역은 간쑤·광둥·헤이룽장·후난·후베이·타이완 등 23개 성(省)과 광시장족·네이멍구·신장웨이우얼 등 5개 자치구(自治區)와 베이징·상하이·충칭·톈진 등 4개 직할시(直轄市), 마카오·홍콩 등 2개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 이루어져 있다.

■ 지 리

'중국' 또는 '중화'라는 나라 이름의 중(中)은 중심, 화(華)는 문화라는 뜻으로 세계의 중심 또는 문화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세계 4위의 큰 국토를 갖고 있는 중국은 동쪽으로는 북한, 북쪽으로는 몽골·러시아,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네팔, 남쪽으로는 미얀마·라오스·베트남 등과 인접해 있다.

■ 기 후

중국의 기후는 최남단의 열대에서 서부의 건조기후, 동북삼성의 냉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가 대부분 나타나고, 동부의 저지에서 서부의 8000m급 고산지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중국의 식생도 열대우림에서 냉대의 타이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IV. 주요방문지 소개

1. 백두산

백두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강도 삼지연군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린 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걸쳐있는 화산이다. 중국에서는 창바이 산, 만주어로는 골민 상기안 알린이라고 부른다. 높이는 2,750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삼너리가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있는데다가 흰색의 부석들이 얹혀져 있어서 ‘흰머리산’이라는 뜻으로 ‘백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두산의 최고봉은 장군봉이다. 2,500m 이상 봉우리는 16개로 향도봉, 쌍무지개봉, 청석봉, 백운봉, 차일봉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대각봉, 녹명봉, 천문봉, 망천후 등 2,500m 미만인 봉우리도 여럿 있다. 정상에는 칼데라 호인 천지가 있다.



2. 용 정

용정에서 처음으로 조선족마을이 조성된 해는 1877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의 리재민, 장인석, 박윤언 등과 평안북도의 김인상 등이 처음으로 14호를 거느리고 와집령(흔히 오랑캐령이라고 부른다)을 넘어 룡도하와 해란강 합수목(지금의 용정시 시교)에 이르러 강변의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첫 마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용정의 시초라 할 것이다.

용정은 우리 민족이 개척한 우리의 도시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지금도 70퍼센트 이상이 조선족이므로 한쪽이 오히려 우리말을 배우는 현상이 많다. 또한 용정은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시작한 곳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용정은 일제의 마수가 제일 먼저 뻗친 곳이기도 하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1908년 일제는 <조선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곳에 군경을 파견하여 <조선통감간도파출소>를 세웠다.

이 기구는 나중에 <간도일본총령사관>으로 바뀌었다. 후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교육열이 높아져 학교가 세워지고 차차 민족의식도 싹트고 따라서 애국심도 들끓게 되었다.

그러다 끝내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3월에는 이곳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른바 <3.13만세운동>이라 불리우는 이 사건은 만주지방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가장 뜻깊은 사건이었다. 이후로 용정은 우리 민족의 얼을 가장 잘 지키는 요람이 되었다.

연길시에서 버스를 타면 약2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연길못지 않게 우리 나라 역사와 연관이 있는 용정시가 있다. 민족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가 중학교를 이곳에서 다녔고, 박경리의 대하소설인 토지(土地, 투띠)에 나오는 배경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은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많은 싸움터중의 하나이다.

용정은 장백산맥의 중단에 위치해있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중간이 평원이다. 경내에 해란강과 부르하통강이 흘러 농업이 발달하였다. 전국에서 제일 큰 과수농장이 있으며 앞담배와 사과배, 송이버섯이 특산물로 꼽힌다.

용정시에서 연길로 조금 나오면 낮은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작은 정자가 있다. 이 정자가 선구자라는 노래에 나오는 일송정(一松亭, 이송팅)이다. 이 일송정에서 보면 해란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신의 나라를 떠나와 외로운 싸움을 했던 이들의 깊은 서러움이 느껴지는 듯하다.

용정에는 윤동주가 다녔던 대성중학교가 있다. 그 학교에는 여전히 조선족들이 다니고 있고 교사(校舍, 쏘써)앞에 윤동주 기념비도 있다. 이 학교는 용정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둘러보는 곳 중의 하나이다.



< 일 송 정 >



< 대 성 중 학 교 >

무릇 용정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시내 중심에 있는 용정지명기원지에 와서 돌아보고 혼상하면서 한차례 관광을 한다. 이곳에는 우아하게 하늘높이 치솟은 수양버들 한그루가 서 있다. 수양버들옆에는 돌비석이 세워져있는데 비석의 정면에는 황금빛이 번쩍이는 "용정지명이 기원된 우물"(龍井地名起源之井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고 비석의 아래쪽에 있는 우물어귀를 돌로 둘러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용정"이라고 부르는 우물이다.

우물은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흘러간 역사의 찬란한 빛발을 반사하고 있다. 때는 1879년 전후, 조선족농민 장인석과 박윤언 두 가정이 용정에 이사와 황무지를 일구고 곡식을 심다가 문득 이 오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푸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근의 한족농민들과 함께 이곳에 두레박받침대를 세웠는데 조선족들은 이를 용두레우물이라고 하였다.



< 용 두 레 우 물 >



< 용 두 레 우 물 >

3. 훈 춘

훈춘(훈춘, 중국어 간체: 琿春, 병음: Húncūn)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동부에 위치한 현급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 국경 개방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시의 인구는 25만여 명이고, 이 중 조선족이 약 45%를 차지한다.

고구려 시대에는 책성부가 있어서, 동방지배의 거점이 되었다. 8세기에는 발해가 이 지역에 동경용원부(훈춘 시 팔연성)를 설치하여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해로의 중심지로 삼았다. 발해는 동해를 남해라고 불렀으며,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많은 배가 포시에트 만에서 출발하였다. 발해 문왕 784년 -793년에는 임시로 수도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후 상경용천부(흑룡강 무단장 시, Ning'an 시 발해 진)로 천도했다. 발해가 멸망한 후에는 여진족의 땅이 되었다.

중화민국이 성립되자 1913년(중화민국 2년) 청 제도 폐지와 함께 훈춘현이 되었고,

1988년 6월 14일 현급시로 승격되어 훈춘 시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안중근의사 유적지 >



< 안중근의사 유적지 >

3. 장 춘 (창 춘)

창춘(중국어 간체: 长春, 정체: 長春, 병음: Chángchūn, 중국조선말: 장춘)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 성에 있는 부성급시이다. 지린 성의 성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 창춘 제일 자동차 제조 공장과 창춘 영화 제작소가 있어, 자동차공업과 영화 제작의 거점이 되고 있다. 총면적 20,571km², 집시구의 면적은 3,578km², 시가지는 168.6km², 총인구는 712만명이다. 주민은 한족, 만주족, 조선족, 후이족, 몽골족, 시보족 등 38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해시대 부여부의 선주에 속해있었다. 이후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에 속했었으며, 1800년 청나라 황제인 가경제는 이통 강의 동쪽 기슭에 있던 작은 마을을 창춘이라 이름지었다. 1905년부터 1935년까지 창춘은 일본 소유의 남만주 철도와 러시아 소유의 동청 철도의 교차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창춘에는 철도 수리소가 있었고 창춘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네이멍구(內蒙古)로 뻗은 지선이 있었다. 창춘은 만주국의 수도가 되었고 당시에는 신징(新京, 신경)이라고 불렸다. 신징은 잘 계획된 도시로 넓은 도로와 현대화된 공공 시설이 있었다. 도시는 경제와 도시 기반의 급격한 확장을 겪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 일본에 의해 만주국 정부의 수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지금은 웨이만황궁박물관(偽滿皇宮博物院)이 된 제국 궁전(帝宮)에 살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심각하게 파괴된 도시는 1945년에 소비에트 군에 의해 해방되었다. 소련군은 1946년 중국 내전 때까지 계속 도시에 주둔하였다. 1946년에 국민당 군은 도시를 점령하였으나 중국 공산당 군의 저항에 밀려 도시 외곽의 농촌은 차지하지 못했다. 도시는 12달 동안의 포위 공격 끝에 인민해방군의 손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굶주림으로 10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4년에 창춘을 지린 성의 성도로 정했다.

창춘은 동북아시아의 기하학적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남쪽으로는 랴오둥 반도의 해안선과 대한민국 및 북한,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몽골이 있다. 창춘은 동베이의 교통과 통신의 중추이다.

V. 연수 후기

지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로 한 민족의 신화가 살아 숨 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항일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의 근거지인 용정지역과 북한 접경지역인 두만강 주변 도시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본다면 현재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의 현실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와의 관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연수 첫날 중국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백두산을 등반하면서 가슴깊이 느낀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가슴 아픈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었을 백두산이나 압록강을 가기 위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몸소 체험했고 연수에 참여한 동료의원과

함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안보의식이 더욱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이후 방문한 두만강 주변 북한 접경도시들을 둘러보며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곳은 러시아와 접경한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 있는 안중근 의사 거소 유적지였다. 최근들어 중국정부가 복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까지 중국정부로부터 관광객이 적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져 폭우로 집 일부가 무너진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1년 전인 1908년 약 석 달간 머물며 독립운동을 구상했던 곳이며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야 할 항일투쟁의 역사적인 장소인 것이다.

이렇듯 이번 중국 연수를 통해 지난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의 뜨거운 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민족의식과 통일 안보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문을 넓혀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